

# Find Your Place

##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외향형, 내향형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다르듯 각자의 성향에 따라 마음에 드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나와 주파수가 맞는 장소에서는 더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어요.

**PART1 공간 성향 파악하기**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 공간이 나에게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밸런스 게임을 통해 내게 맞는 공간을 알아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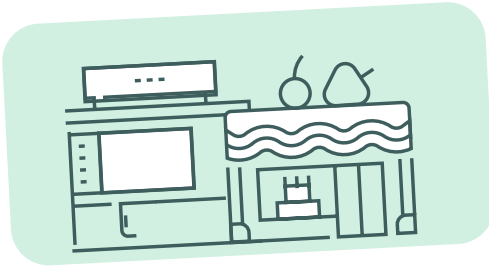
<b>No.1</b> 새로 생긴 장소 남들이 다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방문하기 <b>VS</b> 남들이 다녀간 후 여유 있게 가기 3 번으로      2 번으로	<b>No.2</b> 통장이 '텅장' 되더라도 한정판 갯 하기 <b>VS</b> 내 잔고는 소중한! 한정판 대신 저축하기 3 번으로      4 번으로
<b>No.4</b> 공간 제대로 못 즐기고 인생샷 건지기 <b>VS</b> 공간의 분위기 제대로 만끽하고 사진 하나도 안 찍기 5 번으로      6 번으로	<b>No.3</b> 평생 향수 안 뿌리기 <b>VS</b> 평생 음악 안 듣기 5 번으로      4 번으로
<b>No.5</b> 인스타그램 피드 업로드 일주일 동안 안 하기 <b>VS</b> 인스타그램 피드 업로드 매 시간마다 하기 7 번으로      8 번으로	<b>No.6</b>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는 팝업 스토어 초대 받기 <b>VS</b> 굿즈 주는 팝업 스토어 초대 받기 9 번으로      10 번으로
<b>No.8</b> 한 끼 굶고 핫플 카페에서 디저트 먹기 <b>VS</b> 하루 세끼 먹고 싶은 것 먹고 핫플 카페 안 가기 11 번으로      12 번으로	<b>No.7</b>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기 <b>VS</b> 하루 종일 밖에서 친구랑 놀기 9 번으로      8 번으로
<b>No.9</b> 여행비로 100만 원이 생긴다면 숙소에 올인하기 <b>VS</b> 여행비로 100만 원이 생긴다면 맛집에 올인하기 12 번으로      B 타입	<b>No.10</b> 연차 내고 미술관 도장 깨기 <b>VS</b> 연차 내고 맛집 도장 깨기 C 타입      11 번으로
<b>No.12</b> 사생활 노출되고 인플루언서 되기 <b>VS</b> 사생활 보장되고 평범하게 살기 A 타입      E 타입	<b>No.11</b> 웨이팅 1시간 하고 핫플 가기 <b>VS</b> 줄 안 서고 덜 유명한 곳 가기 D 타입      12 번으로

**PART 2** **최애 공간 발견하기** 밸런스 게임을 통해 나온 자신의 성향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공간을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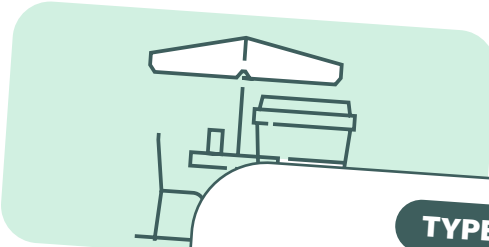
그 공간을 만날 수 있는 동네도 추천해 드립니다.

**TYPE A****팝업 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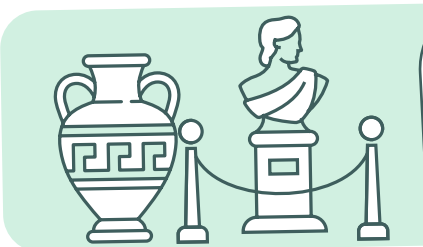
남들이 우르르 가는 장소는 싫어하는 당신에겐 한발 앞선 경험을 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좋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협업이 활발히 열리는 팝업 스토어는 따끈따끈한 영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팝업 스토어가 자리한 성수동으로 향해 보세요.

**TYPE B****숨겨진 핫플 발굴**

어떤 곳이 유명해질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유명해져 버린 동네 대신 신당, 금호, 약수 같은 핫플 옆 동네로 놀러가 보세요. 숨은 골목을 어슬렁거리다 감각적인 카페와 맛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발굴한 장소를 멋진 인증샷을 통해 알려보세요.

**TYPE C****새로운 미술 공간**

소비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이군요. 유행에 휩쓸리지 않기도 하죠. 기록과 예술을 위한 미술관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장소를 옮겨 재개관을 한 아라리오갤러리 등 새로 문을 연 미술 공간을 섭렵해 보세요. 영혼의 에너지를 채워줄 거예요.

**TYPE E****데스티네이션 스테이**

자신만의 호흡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편이군요. 숙소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스테이를 예약해 그곳의 감각을 온전히 흡수해 보세요. 제주 전통 가옥에서 북유럽 모더니즘의 미학을 만날 수 있는 탈로제주, 꽃자왈을 담은 정원에서 사색할 수 있는 금등침화에서 1박 어떠요?

**TYPE D****로컬 골목 탐방**

평소 새로운 공간을 디깅하며 가고 싶은 곳을 저장해 두는 편이군요.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과 체력이 있는 당신에겐 국내 여행을 추천합니다. 부산 전포동이나 대구 삼덕동에서 숨은 맛집이나 카페, 편집숍에 들러 그곳의 굿즈까지 득템해 보세요.

